



성령 안에서의 대화

- 깊은 경청과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 방식
-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는 구조화된 대화와 경청의 과정
- 그룹이 성령의 영감에 마음을 열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
- 결정으로 이어지는 식별을 하게하는 방식

서문

시작하기 전에 침묵, 기도, 독서, 질문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갖습니다.
질문을 숙고하면서 성령께서 초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지시나요?

1 라운드 나눔

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자신의 반응: 숙고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어떻게 느끼시나요? (예: 최대 2~3분)

- 첫 번째 사람이 발언하고 나면 (약간 침묵한 후) 다음 사람은 왼쪽에 앉은 사람이 됩니다.
- 각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같습니다. 진행자는 시간을 설정해 놓는 타임키퍼로서 30초가 남았을 때 알려줍니다. 발언자가 시간을 다 사용하면 타임키퍼의 휴대폰에서 소리가 납니다.
- 각 사람의 나눔 사이에 잠시 멈추고 침묵합니다.
- 다른 이의 의견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음. 서로의 말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존중하는 태도입니다.

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1~2분간 침묵의 시간을 주어 각자들은 내용을 숙고해 볼 수 있게 합니다. 이렇게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

2 라운드 나눔

그룹에서 서로에게서 들으신, 느끼신 것은? 여러분께서 들은 것을 나누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나요? (최대 1-2분.)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룹에 속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입니다. 무엇을 들으시고, 느끼셨나요? 첫 번째 사람이 발언한 뒤 (잠시 침묵 후) 다음 사람은 왼쪽 사람이 됩니다. 진행자는 타이머 사용을 위해 핸드폰 소리를 켭니다.

- 각 사람의 나눔 사이에 잠시 멈춥니다.
- 다른 이의 의견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.

3 라운드 나눔:

'우리'가 들은 것 중에 전체 그룹과 나눌 내용은 무엇인가요?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요?

- 첫 번째 사람이 발언하고 나면 (약간의 침묵 후) 다음 발언할 사람은 왼쪽 사람이 됩니다.
- 그룹이 나누는 내용 요점을 정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화를 이어갑니다.
- 그룹 대표는 그룹이 함께 정한 내용을 1-2-3 요점으로 적어야 합니다.(몇몇 테이블 대표가 전체 그룹과 나눌 것 입니다.)



진행자 역할: 진행자는

- 각 라운드의 질문에 구성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각 사람에게 “이 세션에 어떤 마음 상태로 오시게 되었나요?”(예: 열린 마음, 열망, 피곤함, 관심, 숙고 등)에 대해 한 단어로 표현하도록 초대합니다.
- 모든 사람에게 기밀을 유지해 줄 것을 기억시킵니다.
- 각 개인에게 할당된 시간이 준수되도록 합니다.
- 타임키퍼 역할을 합니다: 휴대폰을 사용하여 타이머 시간을 설정하고(예: 2 분), 시간이 다하면 소리가 나도록 설정합니다. (만일 어떤 이가 할당된 전 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고 미리 끝나는 경우에는 타이머를 중지시킵니다.)
- 발언할 시간이 30초 남았을 때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.
- 각 사람이 말한 후에는 잠시 침묵을 지키게 합니다.
- 1라운드와 2라운드가 끝난 후 1~2분간 침묵을 지킵니다.
- 3라운드 이후 '그룹 대표/서기'에게 그룹이 기여한 내용을 적어달라고 요청합니다.
- 나눔을 해 준 것에 대해 간단한 감사 인사를 합니다.